

반다이산

반다이산은 해발 1,816m로 용암층과 화산재층이 번갈아 층층이 쌓인 성층화산입니다. 두 번의 큰 분화로 산 모양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약 2500년 전, 균형 잡힌 산 모양을 지녔던 반다이산은 화산 활동으로 봉우리가 붕괴되어 누마노타이라 칼데라가 형성되었습니다.

1888년에는 지하수와 지표수가 마그마와 용암으로 인해 가열되어 격렬적인 수증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용암의 유출은 없었지만 이 강렬한 폭발로 인해 반다이산의 4개 봉우리 중 하나인 '고반다이'(반다이산 북쪽 1,800m의 봉우리)가 산체 붕괴해 대규모 암설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암설 사태로 11개의 마을이 매몰되었고 현재 '우라반다이'라 불리는 산의 북쪽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추가 발생한 암설 사태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계곡이 막혀 약 300개의 호수와 늪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아름다움이 반다이아사히 국립공원의 가장 큰 매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서식했던 식물은 매우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식림사업 덕분에 단기간에 재생될 수 있었습니다. 용암 분화였다면 생태계에도 피해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반다이산에는 난이도가 다른 6개의 등산로가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산 정상에서는 고반다이의 붕괴 흔적이나 고시키누마 호소군의 수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등산로들은 7세기 초기부터 산악승배에 근거하는 민간 신앙 중 하나인 수험도의 수행자들이 육체적인 고행을 견뎌내는 수행의 장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5월 말부터 10월의 등산 시즌에는 그들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다이산은 용암, 재, 경석, 단편화된 바위 등의 단단한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체 붕괴로 인해 지층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게 된 지질학적으로도 귀중한 장소입니다. 현재의 반다이산은 오반다이(해발 1,816m), 구시가미네(해발 1,636m), 아카하니아마(해발 1,430m)라는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